

---

# 문화복지분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2019년도 8월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목 차

---

제1장 출장 개요	2
-----------	---

제2장 세부출장 계획	3
-------------	---

제3장 사전조사	8
----------	---

제4장 주요 출장 내용	12
--------------	----

1.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체장애인협회 방문	12
------------------------	----

2. 연길시 중의병원 방문	14
----------------	----

3. 선양한국인(상)회 방문	16
-----------------	----

4. 한중교류문화원 방문	19
---------------	----

5. 항일유적지 및 고구려유적지 방문	22
----------------------	----

제5장 시사점 및 활용방안	26
----------------	----

# 제1장 출장 개요

1. 출장국가 : 중국(연길, 용정, 집안, 단동, 심양)

## 2. 출장목적

- 선양한국인(상)회를 방문하여 대구관광 홍보를 요청하고, 2·28민주운동에 대한 설명 및 기념행사 개최를 제안
- 연길시 중의병원 및 심양 한중교류문화원 선양지사를 방문하여 의료분야 및 관광분야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활용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유적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역사와 민족성 재조명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

3. 출장기간 : 2019. 8. 22.(목) ~ 2019. 8. 27.(화) / 5박 6일

4. 보고서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 5.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 원 장
	이시복	부위원장
	김규학	위 원
	김태원	위 원
	강민구	위 원
	김재우	위 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김창업	전문위원
	서승주	주 무 관
	강연정	주 무 관
	박원형	주 무 관

## 제2장 세부 출장계획

### 1. 출장 동기 및 배경

- 중국 심양(선양)의 선양한국인(상)회는 320여개의 기업·상인의 회원을 보유한 한인회로, 심양 총영사관 등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공적기관은 물론 중국 현지 정부기관인 심양시 공안국과도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3.1절, 현충일, 광복절, 4.19의거,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이에, 선양한국인(상)회를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구관광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한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구 관광 홍보를 요청하고자 함.
  - 또한, 지난해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자 대구의 소중한 시민정신이 담긴 2.28민주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2.28민주운동 홍보 및 기념행사 개최를 제안하고자 함.
- 서울대병원과의 활발한 의료기술 교류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길 유일의 국립병원인 연길시 중의병원을 방문하여 중의병원 및 연길시 위생건강계획국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시찰을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연길시의 우수 의료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대구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활용하고자 함.
- 운동주 생가, 안중근 생가터 등을 방문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대구에서 추진 중인 고택 복원·관리 사업, 생가관리 사업 추진에 참고·활용
- 관광명소인 백두산을 방문함으로써 관광 명소화, 관광개발 사업 등 관광정책 추진에 참고·활용
- 한중교류문화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한중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봄으로써 향후 문화교류 사업 및 해외 관광 사업 추진방향 모색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동북3성 항일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역사와 민족성 재조명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

##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 ○ 연변조선족자치주 장애인 연합회 방문

- 일 시 : 8. 22.(목) 18:00
- 내 용 : 조선족 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 연길시 중의병원 방문

- 일 시 : 8. 23.(금) 09:00
- 내 용 :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의료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 ○ 선양한국인(상)회 방문

- 일 시 : 8. 26.(월) 16:30
- 내 용 : 대구관광 홍보 요청 및 2·28민주운동 기념식 개최 제안

### ○ 한중교류문화원 방문

- 일 시 : 8. 26.(월) 17:30
- 내 용 : 한중문화교류사업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 ○ 항일유적지 및 고구려유적지 방문

- 일 자 : 8. 23.(금), 8. 24.(토), 8. 25.(일)
- 내 용 : 항일유적지인 윤동주 생가, 명동학교, 3.13 반일의사릉, 일송정, 백두산 등과 고구려유적지 방문

## 3. 출장효과

- 선양한국인(상)회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교민 및 중국인에 대한 대구 관광 홍보를 요청함으로써 대구관광을 활성화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에 대한 기념행사 개최를 제안하여 2·28민주운동 홍보 및 기념사업 확대에 기여

- 연길시 국립병원인 중의병원을 방문하여 병원관계자 및 연길시 위생건강계획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공공의료 정책 우수사례를 시정에 반영
- 한중교류문화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해외교류 사업에 대한 자료 및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해외문화교류 사업 추진에 참고 및 반영
-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및 중국 한인자치구 관광지의 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관광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집행부에 제안
- 방문도시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의회 차원의 각종 정책 대안 제시

#### 4.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문화복지위원회	위 원 장	이영애	• 국외 출장 총괄
2	"	부위원장	이시복	• 중의병원 방문 총괄 • 보건·의료 관련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3	"	위 원	김규학	• 선양한인(상)회 방문 총괄 • 대구관광 홍보 및 교류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4	"	위 원	김태원	• 한중교류문화원 방문 총괄 • 문화교류 정책관련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5	"	위 원	강민구	• 항일역사유적지 방문 총괄 • 문화유적지 관리·운영 관련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6	"	위 원	김재우	• 고구려 유적지, 백두산 방문 총괄 • 세계유산 관리·운영 및 관광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7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창업	• 국외 출장 일정 및 자료수집 지원 전반
8	"	주 무 관	서승주	• 일정 조정, 출장자 인솔 • 보건·복지분야 자료수집 지원
9	"	주 무 관	강연정	• 기관 방문, 현장시찰 업무 지원 • 문화·예술분야 자료수집 지원
10	"	주 무 관	박원형	• 기관방문 자료 및 방문결과 정리 • 여성·아동분야 자료수집 지원

## 5.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8. 22. (목)	인천 (대구)	연길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체장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li> <li>•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면담 및 시설견학</li> </ul>	리춘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등
8. 23. (금)	연길	이도백하	연길시 중의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길시 위생건강계획국 및 중의병원 관계자 면담</li> <li>• 공공의료기관(국립병원) 운영 및 공공의료정책 우수시책 벤치마킹</li> <li>• 시설물 시찰 등</li> </ul>	연길시 위생건강 계획국 부국장, 리세명 중의병원 원장 등
8. 24. (토)	이도백하	통화	백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명소화 사업 등 관광정책 참고자료 수집 및 추진방향 모색</li> </ul>	
8. 25. (일)	통화	단동	고구려 유적지 (세계유산)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유산 운영·관리 관련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li> </ul>	
8. 26. (월)	단동	심양	선양한국인(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양 한국인(상)회 관계자 면담</li> <li>• 한인회 교류사업 관련 논의</li> <li>• 대구관광 홍보 요청</li> <li>• 2·28민주운동 홍보 및 기념행사 개최 제안</li> </ul>	라종수 선양한국인(상)회 회장 등
			한중교류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교류문화원 관계자 면담 및 시설 견학</li> <li>• 한중문화교류 정책 추진현황 파악분석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li> </ul>	안청락 한중교류문화원 이사장 등
8. 27. (화)	심양	인천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li> </ul>	


## 6. 이동경로





## 제3장 사전조사

### 1.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도 : 베이징</li><li>○ 면적 : 9,596,960km<sup>2</sup>(세계4위)</li><li>○ 인구 : 약 14억 2,006만명(세계1위)</li><li>○ GDP : 약 12조 2,377억달러(세계2위)</li><li>○ 기후 : 남단 열대, 서부 건조기후, 동북 냉대기후</li><li>○ 통화 : 위안화 (1위안=170.88원(매매기준율))</li></ul>
---	--

### 2. 주요 출장 지역

#### ○ 연길(延吉 : 엔지)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州都)로 중국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이며, 주변 농업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이다. 주민의 40%가 조선족이다. 이곳은 청(淸)나라 말기에 간무국(墾務局)이 설치된 뒤 발달하였기 때문에 국자가(局子街)라고도 불렀다.

1902년 엔지청[延吉廳]이 설치되고 1909년 부(府)가 되었으며, 1913년 중화민국 수립 후 현(縣)이 되었다. 1909년 간도협약(間島協約:젠다오협약) 이후에 교역주로서 개방되자 조선인이 많이 이주하여 시의 주변지역을 개척하였다. 부근에는 석탄·금 등의 광산이 있어 광공업이 발달했다. 조선어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사가 있으며, 연변대학교·연변과학기술대학교 등이 있다.

## ○ 용정(龍井 : 룽징)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변조선족자치주 중부에 위치하며, 주도(州都)인 옌지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상공업도시이다. 1913년에 옌변현이 설치되었다가 1983년에 룽징현으로 개칭하였고, 1988년 7월에 시(市)로 승격하였다.

시내 한북판에 있는 3·13만세운동의 현장(용정중앙소학교)을 비롯하여 1880년경 한국인이 우물을 처음 발견하였다는 용정 기원(起源) 우물이 있다.

삼림 및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동·은·납·아연 등이 채굴된다. 공업으로는 기계·화학·제지·야금·피혁 등이 생산된다.

두만강의 지류인 해란강(海蘭江)이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며, 주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는 쌀·콩·수수·옥수수·아마(亞麻)·사과·배 등 농산물을 산출한다.

창투철도[長圖鐵道:長春~圖們]가 시내로 지나며, 교육기관으로는 3개의 대학원과 146개의 소·중·고등학교가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비암산의 일송정(一松亭), 3·13반일의사의 묘지, 시인 윤동주의 묘지, 한왕산고성(汗王山古城) 유적 등이 있다. 시내는 현대적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백두산 관광기지로도 큰 몫을 한다.

## ○ 집안(集安 : 지안)

고구려시대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國內城)이 위치했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집안은 압록강과 훈강 유역의 유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아홉 곳의 원시 유적을 비롯하여 마제 석기, 빗살무늬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한무제 때 현도군의 관할 지역에 편입되었다가 고구려가 다시 현도군을 물리치고 옛 땅을 회복하면서 서기 3년에 오녀산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 427년에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 전까지 집안은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역할을 425년간 지속했다.

집안에는 광개토왕릉비(호태왕비)를 비롯하여 고구려 고분인 장군총(將軍塚)·각저총(角抵塚)·무용총(舞踊塚) 등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1994년에 이 지역을 국가역사문화명성(國家歷史文化名城)에 지정하였으며, 2004년에는 고구려 왕성과 고분 유적이 북한의 고구려 유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환도산성과 국내성 유적은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보호받고 있다.

## ○ 단동(丹東 : 단둥)

고대에는 단동이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당나라의 고구려 정복 후에는 안동도호부에 속했다가, 발해가 건국된 이후 발해의 지배를 받았다. 금나라 때 파속부로(婆速府路)였고 원나라 때에도 파속부가 두어졌다. 청나라는 만주에서 한족의 정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지만, 1874년에 전면 해금을 단행했고 1876년에 안동현이 신설되었다.

안동항(安東港)은 1903년 대외 개항, 압록강 수운의 발달에 의해 유역의 물자 집산지로서 발전했다. 1931년에 만주 사변이 발발하자 즉시 일본군에 점령되었고 만주국은 1934년 안동성(安東省)을 신설, 안동 현을 성도로 정했다. 1937년 안동현은 안동시(安東市)로 승격했다. 이 시대에 많은 일본 기업이 안동에 진출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후 중국 공산당군이 접수하였고 한국전쟁(1950년 ~ 1953년) 때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병참 전선이 되었다. 1965년 안동시는 단둥시로 개칭되었다.

## ○ 심양(瀋陽 : 선양)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의 성도(省都)로 옛이름은 봉천(奉天), 만주어명은 무크덴(Mukden)이다. 동베이[東北]지방 최대의 도시로 이 지방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다. 동베이 남동부의 노년기산지 말단부가 평야와 접하는 랴오허강 유역에 있다. 일찍이 전국시대부터 개발되어 한대(漢代)에는 요동군에 속했고, 뒤에 고구려의 영토에 속해 있다가 다시 당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심주(瀋州)가 되었다. 그 후 발해에 속했다가 요·금시대에는 동경로, 원대에는 심양로가 설치되었으며, 명(明)은 변경의 요지로 삼아 심양위(瀋陽衛)를 두었다.

청조(淸朝)가 일어나자 1625년 랴오양[遼陽]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고, 1634년 청 태종은 성경(盛京)이라 개칭하였으며, 1644년에 베이징을 국도로 정한 뒤에는 이 곳을 배도(陪都)로 삼고, 1657년에 봉천부를 설치하였다. 19세기 말에 러시아와 일본의 동베이 침략이 시작되자 선양은 침략의 목표가 되고, 러일 전쟁 때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

청조가 멸망하자 동베이는 지방 군벌(軍閥)의 지배하에 들게 되었고, 선양은 그 두목 장췌린 정권의 본거지가 되었다. 1932년에 일본에 의해 ‘만주국’이 건국 되면서 도시명이 봉천시(市)로 개칭되었고, 그 후 일본의 동베이 지배의 주요 기지로 발전하여 만주국 제1의 도시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만주국이 붕괴되자 지명이 다시 선양으로 바뀌었으며 창춘[長春]·다롄[大連]·산하이관[山海關]·단둥[丹東]·지린[吉林]으로 통하는 주요 철도가 분기하여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 제4장 주요 출장 내용

### 1.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체장애인협회 방문

####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2.(목) 18:00
- 장 소 : 연변장애인문체활동센터
- 참 석 : 리춘자 회장, 럽호 부회장, 문창호 부회장 등
- 내 용
  - 협회 소개 및 활동내용 청취, 홍보영상 시청
  - 시설견학 및 애로사항 청취

#### □ 주요내용

-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체장애인협회(회장 리춘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장애인 연합회 산하협회로, 주내 지체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단법인 단체이며, 산하에 8개 현(시)협회와 연변장애인문체활동센터가 있음.
- 연변장애인문체활동센터는 장애인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문화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7년 10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무용실, 음악실, 체육활동실 등이 있음.
- 연변장애인문체활동센터에서는 매일 장애인 좌식배구, 탁구, 음악, 댄스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등 유대감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협회에는 좌식배구팀, 장애인합창단, 휠체어무용팀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팀은 중국내외 각종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휠체어 무용팀은 매4년마다 열리며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등급이 높은 장애인 예술대회인 ‘전국장애인이예술공연(동부시합)’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중국 CCTV에도 출연하였음.

□ 방문사진



〈 지체장애인협회 설명 청취 〉



〈 지체장애인협회 설명 청취 〉



〈 시설견학 〉



〈 시설견학 〉



〈 기념품 전달 〉



〈 기념촬영 〉



〈 휠체어무용단 공연 〉



〈 휠체어무용단 공연 〉

## 2. 연길시 중의병원 방문

###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3.(금) 09:00
- 장 소 : 연길시 중의병원
- 참 석 : 리세명 중의병원장, 석홍림 연길시 위생건강계획국 부국장,  
한국동 부원장 등
- 내 용
  - 병원 시설 견학 및 설명 청취
  - 병원운영 현황 보고 청취 및 면담

### □ 주요내용

- 연길시 중의병원(원장 리세명)은 1952년에 설립하였고, 2015년에 연변대학 부속중의병원으로 선정되었음.
- 연변주내에서 유일하게 의료, 교학, 과학연구, 예방보건, 재활 등을 결합한 국립종합중의병원이며, 길림성에서 유일한 ‘3급갑등’ 중의병원이며, 장춘 중의약대학, 연변대학의학부 교학병원이기도 함.
- 현재 병상은 400개가 설치되어 있고 의료진은 440명으로 고급전업기술직무가 75명이며, 그 중 전국유명중의약전문가 학술경험계승사업 지도교수 1명, 전국기총유명중의약계승사업 지도교수 1명, 길림성기총유명중의약계승사업 지도교수 1명, 연변주급 유명중의 6명, 박사 2명, 석사 84명임.
- 임상과실 18개, 의과과실 7개, 행정직무과실 8개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급 중점과실 2개, 성급중점과실 5개, 길림성중의약관리국 민족의학중점과실 2개, 국가급 유명로중의계승사업실 1개, 전국기총유명중의약교수 계승사업실 1개, 성급 연구실 3개가 설립되어 있음.
- 병원의 총자산은 3.5억위안(한화 588억원 정도)에 달하고, 64채널 CT, 1.5T MRI 등 대형의료설비 415대, 중의진료설비 110대를 갖추고 있음.

- 2004년에 길림성 최초로 먼저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는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보증금 없이 먼저 입원하고 퇴원 시 비용을 결제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행하였음.
- 새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의료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한국의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국제화 수준의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였고, 2019년에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과 협력하여 지역 내의 고객들은 물론 기타 나라의 고객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의약문화를 동북아지역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의사는 한방과 양방 모두 진료 가능함. 진료범위가 넓은 만큼 전문적인 깊이가 부족한 면이 있어 서울대병원 등과의 의료기술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등 한방관련 인프라가 풍부하고 한방의료가 발달된 대구와의 교류도 희망함.

## □ 방문사진



< 시설견학 >



< 시설견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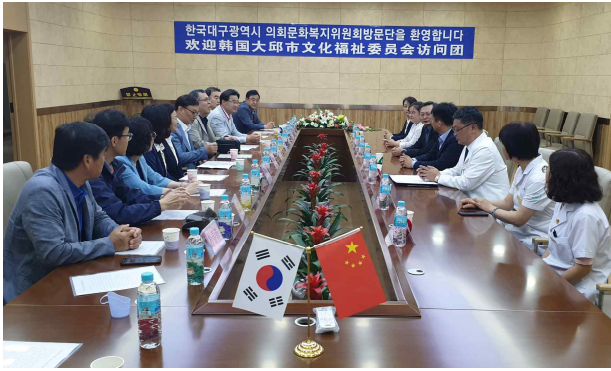


< 시설견학 >



< 시설견학 >





〈 면담 〉



〈 기념품 전달 〉



〈 기념촬영 〉



〈 기념촬영 〉

### 3. 선양한국인(상)회 방문

####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6.(월) 16:30
- 장 소 : 선양한국인(상)회 사무실
- 참 석 : 라종수 회장, 오성일 교민담당부회장, 안성규 교육담당부회장,  
김용재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장, 이용만 선양영남향우회 회장 등
- 내 용
  - 선양한국인(상)회 소개 청취 및 홍보영상 시청
  - 대구관광 홍보 요청
  - 2·28민주운동 설명 및 기념식 개최 요청

## □ 주요내용

### ○ 선양한국인(상)회 주요 연혁

- 1992년 선양투자기업협회 출범
- 1993년 선양투자기업협회 이중후 회장 취임
- 1999년 선양한인회 출범 (초대회장 손명식)
- 2002년 제1회 선양한국주 개최
- 2003년 선양투자기업협회와 선양한인회 통합(초대회장 안경찬)
- 2010년 중국선양글로벌한상대회 개최
- 2013년 선양한국인(상)회 교민안전협의회 구성
- 2015년 외교부장관 표창 수상, 세계한인회장대회 자랑스런 한인회 선정

### ○ 회 원 수 : 320(기업, 상인 등)

### ○ 산하단체 : 건설연합회, 선양유학생총연맹, 비즈니스연합회, 대한체육회, 금속협회 등

### ○ 주요활동

- 선양지역 교민 교류 및 생활에 관한 각종 지원, 권익 신장 및 보호 활동
- 4·19의거,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광복절 등 기념행사
-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선양한국주, 정월대보름 행사, 한민족 체육대회, 교민노래자랑, K-POP 경연대회, 글짓기·그림대회 등)
- 선양 한국상품무역전시관 운영
- 경제포럼 등 경제관련 행사 개최 및 경제관련 정보 수집·제공

### ○ 2·28민주운동 기념식 개최 제안에 대한 답변

- 4·19의거 및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각각 충청향우회와 호남향우회의 적극적인 제안에 개최하게 되었음. 2·28민주운동도 국가기념일이므로 영남향우회와 협의하여 기념식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대구관광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

- 2017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 라중수 회장은 대구 출신이며,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재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는 한국관광공사 대구지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등 한인회 내에 대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사람이 많은 만큼 대구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한인회 제안사항

- “선양한국주”, “송년의 밤” 등 한인회 주최의 대규모 행사 시 국악단 등 대구의 공연팀 지원을 희망함. 한인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연팀의 항공료 등을 대구시에서 부담하여 주기를 희망함.
- 대구-심양 간 직항노선이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항됨으로써 대구와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항 노선이 연중 운항되기를 희망함.
- 한인회 차원에서 대구를 방문하게 될 경우 꽃다발 증정 등의 간단한 환영식이 있으면 교민들의 대구방문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됨.

□ 방문사진



〈 홍보영상 시청 〉



〈 면담 〉



〈 기념품 전달 〉



〈 기념촬영 〉

## 4. 한중교류문화원 방문

###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6.(월) 18:00
- 장 소 : 한중교류문화원
- 참 석 : 안철락 이사장, 김경철 한중교류문화원 원장, 안상경 한중문화콘텐츠 연구소 소장
- 내 용
  - 문화원 시설 견학 및 현황 설명 청취
  - 한중문화교류 관련 면담

### □ 주요내용

- 한중교류문화원 개요
  - 설립일자 : 2014년 7월 18일
  - 기관승격 : 2015년 7월 01일
    - ※ 중국 국무원 동북아개발연구원 산하 중한교류중심
  - 공식명칭 : 중한교류중심
  - 공동이사장 : 안철락(한국측), 박성관(중국측)
  - 원장 : 제2대 원장 김경철(조선족)
- 한중교류문화원 현황
  - 주 소 : 심양시 황고구 장강남가 3호 한국신성 2층, 3층
  - 회 원 수 : 약 1,000명
  - 자산내역 : 약 인민폐 800만원
  - 산하기관 : 동북항일역사자료전시관, 압록강실버예술단, 심양노래를찾는 사람들, 만화창의탐구단, 마중물배구단 등 12개 기관.
- 한중교류문화원은 한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문화단체로, 양국 간 문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순수 민간외교 차원에서 신뢰 향상과 우호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원에서는 “첫째, 정치적 활동을 배제하고, 둘째, 민족적 차별을 하지 않고, 셋째, 이익 추구를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존재하는 것은 봉사이다.”라는 삼무일존(三無一存)의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음.
- 공연행사는 주로 국악이나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한 전통공연과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현대공연으로 이루어짐. 한국에서 전통음악 전문가를 초빙해 공연과 강습을 함.
  - 국악·사물놀이·무용 강습,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 교실, 김광석 가요제, 청춘 콘서트, 신년 음악회, 부모사모가요제, 복면가요제 등
- 교육행사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전 세대를 포괄하여, 각 세대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루어짐. 어린이는 만화를 주제로 한국어를 보다 친숙하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은 대부분이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십년 젊어지기’라는 교육목표하에 대학교육에 준하는 형태로 교육을 실시함.
  - 실버건강문화대학, 건강행복노래교실, 만화창의탐구단, 만화도서관, 심북 신구조선족학교 지원, 화신소학교 슬로리딩 교육 지원 등
- 체육행사는 배구대회와 탁구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한중친선배구대회, 한중친선탁구대회, 한국태권도 시범단 정기대회 등
- 전시행사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서 항일을 선택하고, 동북삼성에서 펼쳤던 다양한 항일투쟁과 항일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의 센카구열도 분쟁과 동일한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 중한항일역사자료전시관, 독도자료홍보관, 서화예술관 등 운영
- 주선양한국총영사관으로부터 수준 높은 문화기획과 연출을 인정받아, 중국과 한국 즉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행사를 진행하였음. 민간차원의 문화원과 국가 차원의 영사관이 협력하여 중국정부와 함께 이루어냈다는 의미가 있음.
  - 한·연변 우호의 밤, 한·중 FTA 발전 포럼, 독립유공자 훈장전수 및 후손 초청간담회
- 선양한인회, 대한민국독도사랑협회 등 민간기관과도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문화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 한중교류문화원 제안사항

- 동북3성의 항일유적지와 고구려유적지를 대구학생 수학여행 코스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 문화원에는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실버예술단 등 노인관련 프로그램이 많음. 대구의사회 등을 통해 문화원 이용 노인 대상 의료봉사활동이 가능한지 검토요청함.

□ 방문사진



< 시설견학 >



< 시설견학 >



< 문화원 홍보영상 시청 >



< 문화원 설명 청취 >



< 면담 >



< 면담 >



〈 기념품 전달 〉



〈 기념촬영 〉

## 5. 항일유적지 및 고구려유적지 방문

### □ 방문개요

- 일 자 : 2019. 8. 23.(금), 8. 24.(토), 8. 25.(일)
- 방문지 : 일송정, 운동주 생가, 운동주 생평전시관, 명동학교, 백두산, 광개토대왕릉비, 광개토대왕릉, 장수왕릉 등

### □ 주요내용

- 중국정부에서는 항일유적지 및 고구려유적지에서 한국어로 역사관련 설명을 하거나 현수막을 들고 사진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복공안이나 경비원을 배치하여 한국인 관광객들을 감시하고 있음.
- 운동주 생가 입구 경계석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운동주 생가”라고 표기되어 있음. 이는 지난 2012년 중국 지린성에서 운동주 생가를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만든 것으로 운동주 시인이 중국인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
- 운동주 생가는 지붕을 비롯한 곳곳에 잡초들이 무성하고, 서까래에 섞은 부분이 많았으며, 장수왕릉은 앞쪽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뒤쪽에는 돌 사이의 틈이 벌어져 약간씩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임. 유적지에 대한 보존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



〈 일송정 〉



〈 일송정 〉



〈 운동주 생가 〉



〈 운동주 생가 〉



〈 운동주 생가 〉



〈 운동주 생가 〉





〈 윤동주 생평전시관 〉



〈 윤동주 생평전시관 〉



〈 명동학교 옛터 기념관 〉



〈 명동학교 옛터 기념관 〉



〈 백두산 〉



〈 백두산 〉



〈 광개토대왕릉비 〉



〈 광개토대왕릉비 〉



〈 광개토대왕릉 〉



〈 광개토대왕릉 〉



〈 장수왕릉 〉



〈 장수왕릉 〉

## 제5장 시사점 및 활용방안

### 1.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체장애인협회 방문결과

-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체장애인협회는 주장애인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연합회 산하에는 좌식배구팀, 장애인합창단, 휠체어무용팀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팀은 중국내외 각종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휠체어무용팀은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등급이 높은 장애인예술대회인 ‘전국장애인예술공연(동부시합)’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남.
- 협회는 휠체어무용팀, 장애인합창단 등의 초청공연이나 장애인 친선체육경기 등을 통해 대구와 교류하기를 희망하였음.
- 대구시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제교류 증진 및 우호 협력을 위해 매년 중국 북경시, 대만 대중시와 다양한 종목으로 장애인 체육교류전을 개최하고 있으나, 향후 특정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더불어 연변 등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및 문화활동 관련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2. 연길시 중의병원 방문결과

- 연길시 중의병원은 2011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 2013년 9월 중국 내 최대규모의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2011년 7월 건강검진센터의 건축설계, 교육훈련, 의료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등 설립단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의 자문을 받아 오고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밀의료와 유전체 연구를 건강검진에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임.

또한 2015년 한국의 연세바른병원과 관절·척추분야 연구 및 치료기술 향상을 위한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자문과 기술 교류, 척추·관절 분야 비수술 치료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운영하였음.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도 의료기술 교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경희대, 원광대과의 한의학 분야 교류를 추진할 계획임.

- 중의병원은 한방과 양방을 모두 활용하여 진료하는 중의사의 특성상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의료기술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대구의료원도 타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운영시스템의 효율화, 기술의 선진화 등 공립의료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 3. 선양한국인(상)회 방문결과

- 선양한국인(상)회는 기업과 상인 위주의 한인회로서 교민의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 생활 지원 등의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각종 문화체육 행사, 국경일과 보훈관련 기념식 개최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특히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식을 한인회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외출장 시 대구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한인회 차원의 기념식 개최를 제안하였음. 2017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 라종수 회장은 대구 출신으로서 2·28민주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지역연고를 떠나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으므로 한인회 차원의 기념식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
-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3·15마산의거, 4·19혁명이 있게 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깊은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음.
- 향후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협조하여 선양한국인(상)회의 2·28민주운동 기념식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인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 또한 한인회 대구 방문 시 기념품 증정, 환영현수막 게첨 등의 환영행사를 통해 한인회와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한인회 차원의 방문 뿐 아니라 한인회 회원인 기업이나 상인들의 개인적 대구 방문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 한중교류문화원 방문결과

- 한중교류문화원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양국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연, 교육, 체육,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많은 활동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항일관련 활동이었음. 문화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항일을 선택하고, 중한동북항일 역사자료전시관, 안중근 의사 사진전, 동북3성 항일유적지 탐방, 유적지 시설 개보수, 한중 항일영화제, 독립유공자 훈장전수 및 후손초청간담회, 중국지역 훈장 미전수 항일(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등의 항일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음.
- 문화원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동북3성 항일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대구 학생 수학여행 코스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학생 상호간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국외 수학여행을 지양하도록 하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 수학여행 코스의 진행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항일 유적지 탐방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수학여행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5. 항일유적지 및 고구려유적지 방문결과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시점에 일송정, 운동주 생가, 명동 학교, 백두산 등 항일유적지를 방문한 것은 매우 뜻 깊고 감동스러운 일이었음. 암울했던 시기에 목숨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흔적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음.

- 유적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의 흔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마음이 아팠음. 윤동주 생가 입구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생가’란 경계석이 버젓이 서있었으며, 항일유적지 및 고구려 유적지에서는 유적지에 대한 설명과 사진촬영을 제한하고 있었음. 이러한 현실이 지속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역사가 진짜 역사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국제 사회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 또한 윤동주 생가에 잡초들이 무성했던 점, 장수왕릉의 호분석(다른 돌들이 밀려나지 않게 괴어놓은 뒷면의 큰 돌) 하나가 없어져 뒷면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우리의 소중한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유적지의 관리권이 중국에 있어 우리가 직접 관리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국과 공동으로 복원작업이나 학술조사, 유적·유물의 복원·보호를 위한 연구팀 구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국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겠음.